

엔씨소프트와 함께 하는 위클리 어워드

NC SOFT (6월 13일~19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선수들의 힘이 떨어지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한여름이다. 이젠 체력과 정신력의 싸움. 그러나 승부는 태양보다 뜨겁고, 팬들의 열기는 식지 않는다. 지난 한 주간의 프로야구를 되돌아본다.

●**팀=한화**
4월만 해도 한화를 두고 '3할 승률이나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러나 이젠 모두들 '요즘 한화를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한화의 상승세가 무섭다. 지난주에도 KIA와 두산이 한화에 1승2패씩으로 나가떨어졌다. 주간전적 4승2패. '야왕'의 진두지휘 속에 화려한 비상을 꿈꾸는 독수리 군단의 반란이다. 한화는 6월 승부에서 '태풍의 눈'이다.

●**선수=한화 류현진**
류현진이 시즌 초반의 부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에이스'로 부활했다. 지난주 2경기에 등판해 2승을 챙기며 시즌 7승 고지에 올랐다. 다승 1위 그룹에도 1승차로 다가섰다. '피델'이 돌아오면서 다승 판에도 회오리가 몰아칠 기세다. 16이닝을 던져 단 4점만 내줬다. 특히 19일 대전 두산전에서 6회 최준석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역대 최연소(24세2개월25일) 및 최소경기(153게임) 1000탈삼진 기록을 작성했다.

●**경기=17일 잠실 SK-LG**
경기의 질을 논하기 전에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의 종합선물 세트였다. 9회초 1사까지 4-1로 앞선 LG는 가장 믿을 만한 임찬규를 올렸다. 임훈 불넷. SK 김성근 감독은 적군인 LG 박종훈 감독의 아들 박윤을 대타로 내세웠다. 프로야구 사상 3번째 부자 맞대결이었지만 박윤은 아버지 앞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야구는 9회 투아웃부터였다. 임찬규가 박진만에게 좌전안타를 맞은 뒤 갑자기 컨트를 난조에 빠지며 4연속 불넷 및 3연속 밀어내기 불넷으로 동점을 허용했다. 바뀐 투수 이대환도 첫 타자 이호준에게 밀어내기 불넷으로 4-5 역전을 허용한 뒤 박경권에게 적시타를 맞고 말았다. LG 로선 통탄의 패배, SK는 거저 주운 승리였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스포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한화 가르시아가 17일 대전 두산전 연장 10회말 끝내기 3점홈런을 터뜨린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홈런=한화 가르시아의 3일 연속 대전구장 홈런**
지난해까지 롯데 유니폼을 입었던 가르시아가 독수리 군단에 합류하자마자 드라마 같은 홈런포를 연일 터뜨리며 강인한 인상을 심어줬다. 15일과 16일 대전에서 KIA를 상대로 이를 연속 만루홈런을 날리더니, 17일 대전 두산전에서 연장 10회말 끝내기 3점홈런을 터뜨렸다.

●**해프닝=김민우의 열연과 심판의 병축함**
넥센 김민우는 19일 목동 롯데전에서 2-0으로 앞선 3회말 2사 만루 찬스에서 아픈 표정을 지었다. 방망이를 왼 손에 롯데 선발 고원준의 투구를 맞았다는 것. 스프레이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귀귀한 주심은 공이 배트 끝에 맞았으며 파울로 판정.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도 배트에 맞은 게 틀림없었다. 배트 맞는 소리를 귀신 같이 알아차린 심판의 판정이었다. 만약 여기서 밀어내기 사구가 나왔더라면 롯데의 역전극은 없었을지도 모를 법했다.

●**빅마우스=개는 누구야? 영국 출신이야? (SK 김성근 감독, 16일 롯데 정훈(사진)이 마치 크리켓을 하는 것처럼 희한한 타법으로 3점홈런을 치더라며)** 스포츠1부

본문 | 김태희 기자 kne81@donga.com 트위터 @sd_silver

'여신' 김태희 뒤편다... 난리 난 잠실

플러코스터 베이스볼

김경문 감독이 두산 사령탑에서 전격적으로 자신사퇴하면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화제가 풍성했던 한주였어요. 상위권 팀 들끼리의 맞대결이 연이어지면서 순위경쟁도 한층 치열했고요. 톨코코스터에서 바라보는 프로야구도 갈수록 흥미진진해져요.

남자들의 로망 김태희 시구하던 날
선수들 술선수범 포수·타자 나서요
물려드는 카메라 등 '여신'은 달라요

현재운 1군 복귀해 결승타 쳤어요
기쁨에 겨운 퍼펙트 세리머니에
상대 선수는 맞고 코치는 기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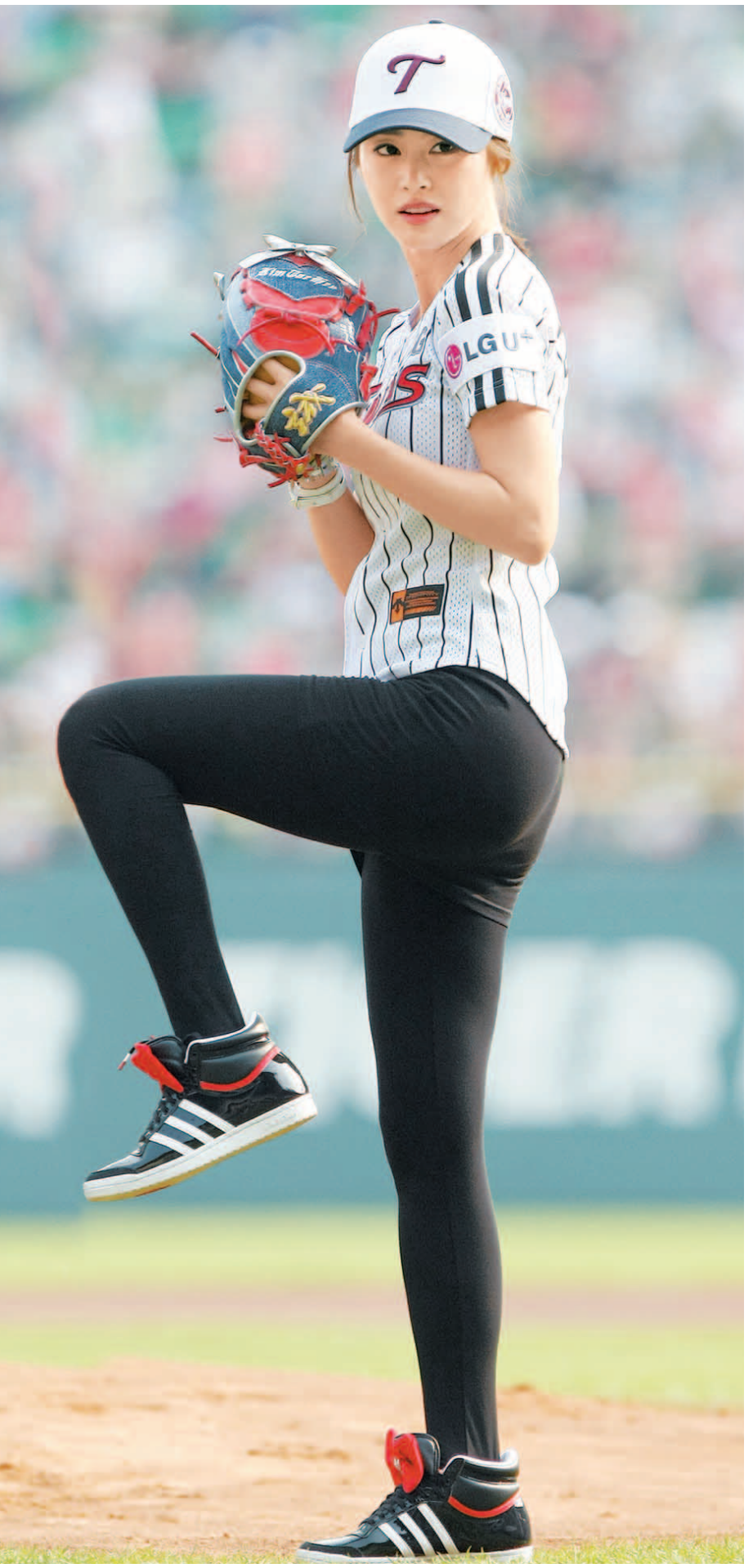
광! '거인' 이대호와 부딪힌 김민성
이대호 "엄살 피우지 마" 한마디에
김민성 "입장 바꿔 생각해보" 해요

●잠실에 불어닥친 '김태희 열풍'

18일 잠실구장에서 최고의 인기스타이자 남자들의 로망인 탤런트 김태희가 시구를 했어요.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취재요청전화를 받느라 LG 홍보팀은 며칠 전부터 눈코 뜰 새 없었고요. 시구 당일에는 그야말로 김태희 열풍이 불었어요. 우선 보통 홈팀 선수 중 당일 등판에 여유가 있는 투수가 시구를 지도하는데요. 당초 신인투수 임찬규가 지도를 하기로 돼 있었대요. 하지만 전날 연속 밀어내기 불넷으로 팀이 패하면서 임찬규가 선배인 김광삼에게 "대신 좀 해주세요"라며 바통을 넘겠다는군요. 그런데 김광삼이 실내훈련장에서 시구를 지도하려는데 이동현이 포수로 나서서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자신이 김태희의 공을 받아주겠다는 것이었죠. 한술 더 떠 적군인 SK 정근우도 실내훈련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1번타자로 시타자로 나서니 똑같이 시뮬레이션 계임을 해야 한다"며 김태희가 시구연습을 할 때 타석에 들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이날 잠실구장에는 포도라인까지 설치됐어요. ENG카메라만 무려 30여대가 몰려들었고요. 여신의 등장에 잠실은 몸살을 앓았습디다.

●현재운의 '박기남 폭행사건'

삼성 현재운은 19일 광주 KIA전에서 2-3으로 뒤진 9회초 2타점 역전 결승타를 쳤어요. 골판통중으로 4월 14일 1군에서 빠진 뒤 전날 1군에 복귀해 결정적 한방을 때렸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루에 나간 현재운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



탤런트 김태희가 18일 잠실 SK-LG전에 시구자로 나섰다. 이날 잠실구장은 김태희의 미모에 흥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연합뉴스

집어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박기남이 절친한 1년 선배 강명구에게 전화를 걸어 "재운이 형, 왜 나를 때리냐"고 하소연하면서 "재운이 형 다음에 빈발 각오하라고 전해 달라"고 했대요. 강명구가 이 말을 전하자 버스 안은 다시 한번 포복절도. 현재운은 동안이어서 그렇지 1979년생으로 박기남보다 두 살 위랍니다.

●리즈가 산삼을 거부한 까닭은?

LG 투수 이동현은 14일 대구 삼성전에 선발등판한 박현준에게 귀한 산삼을 먹여요. 산삼을 환약처럼 만든 거였죠. 최근 박현준이 좀처럼 승리를 얻지 못하자 선배로서 등판 전에 "힘내라"며 자신의 피같은 산삼환 몇 알을 건넸던 거죠. 그런데 옆에 있던 외국인투수 리즈는 박현준이 물을 마시며 산삼환 몇 알을 목으로 넘기는 게 신기했던지 물끄러미 쳐다보더군요. 리즈가 "뭐냐?"고 묻자 이동현은 뭐라고 설명해야할지 난감한 듯 "산삼!"이라고 말했대요. 리즈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일본어지만 영어로 통용되기도 하는 "진생!"이라고 설명했죠. 그래도 리즈가 못 알아듣자 이동현은 가슴을 치며 "코리아 비아그라!"라고 외치며 몇 알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리즈는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아차렸지만 "노!"라며 순진한 미소를 지었어요. 리즈는 김치는 물론 차돌박이까지 한국음식을 잘 먹어요. 그런데 5월 중순 광주 원정 때 회사 중 생고기를 먹은 뒤 장염으로 한동안 고생했대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손사래를 치며 도망을 가더군요.

●항공모함과 나뭇배의 충돌

꼭 항공모함이나 나뭇배와 충돌한 격이었어요. 18일 목동 롯데-넥센전 2회초였어요. 1사 1루서 롯데 이인규가 타석에 들어섰어요. 1루주자는 이대호였고요. 이인규의 타구는 좌중간안타. 이대호는 2루를 향해 뛰었고 넥센 2루수 김민성은 베이스 커버를 들어갔어요. 아홉째. 그런데 그 순간 2루에 서서 들어가던 이대호가 김민성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팡당. 김민성은 그 충격에 뒹겨져 나가 그라운드에서 나자빠졌어요. 목동구장은 순간 웃음바다. 이대호의 공식신장과 체중은 194cm에 130kg. 김민성은 181cm에 80kg이예요. 50kg 차이니, 날씬한 여성 한 명이 엮고 뛰는 것과 같아요. 한때 한술밥을 먹었던 후배가 그라운드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이대호도 머쓱했나 봐요. 김민성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야, 짬 좀 쓰지 마." "엄살 피우지 말라"는 의미예요. 황당한 표정의 김민성. 뒷말이네요. "형.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 참." 웃음보가 또 터져요. 이대호가 역지사지를 하려면 과연 누구와 부딪혀야 할까요? 밥 생 정도는 와야 할까요? 스포츠1부

치 권투선수처럼 퍼펙트 세리머니를 펼쳤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 옆을 지나던 KIA 2루수 박기남이 현재운의 라이드 후에 어깨를 맞고 말았죠. 박기남도 놀라고, 주먹이 뭉개지는 느낌에 현재운도 잠시 머쓱한 표정. 고의가 아니었으니 박기남도 웃고 말았어요. 현재운은 하이파이브를

美 언론 "추신수 부진 때문에 타격코치 교체" 추신수, 보란 듯이 3안타쇼

"코치 해임 매우 실망스럽다"

클리블랜드 추신수(29)가 시즌 중 타격 코치 교체에 유감을 표시했다. 클리블랜드는 20일(한국시간) 기존의 존 누널리 타격코치를 해임하고 브루스 필츠를 새 코치로 임명했는데 AP 통신은 '추신수의 오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추신수는 "우리는 여전히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선두인데 왜 타격 코치가 해고됐는지 모르겠다. 아주 실망스럽다"라고 언급했다. 과거 2년간 3할 타율-20홈런-20도루를 달성했던 추신수는 올 시즌 타율이 0.244로 폭 떨어져 있다. 2003년~2005년 디트로이트 타격 코치를 지냈던 필츠 신임 코치는 2007년부터 클리블랜드 산하 마이니리코 트리플A 팀의 타격 인스트럭터로 일했다. 한편 추신수는 20일 피츠버그와 인터리그 홈경기에서 5번 우익수로 출장해 5타수

이대호 역대 올스타 최다득표 향해 질주

'빅보이' 이대호(롯데-사진)가 올스타 역대 최다득표와 자신의 2번째 최다득표를 향해 순항했다. 동군(SK-삼성-두산-롯데) 1루수 부문 후보인 이대호는 20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올스타전 베스트10 인기투표' 3차 집계에서 총 유효표 96만8108표 가운데 52만 9720표를 얻어 3주 연속 최다득표를 기록했다. 서군(KIA·LG·넥센·한화) 포수로 전체 2위인 LG 조인성(50만2967표)보다 2만6753표 많다.

올스타전 역대 최다 득표자는 지난해 흥성훈(롯데)으로 최종 집계에서 81만8269표를 획득했다. 올해 올스타 인기투표의 총 유효표가 3차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3% 증가해 이대호의 역대 최다득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대호는 2007년에도 동군 1루수로 최다득표를 기록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트위터 @jace2020



클리블랜드 추신수(오른쪽)와 존 누널리 타격코치의 정다했던 한때, 추신수는 누널리 코치의 교체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클리블랜드 | AP 연합뉴스

김재현, 25일 문학 LG전서 은퇴식

SK 소속이던 김재현(36)이 25일 문학 LG전에서 공식 은퇴식을 치른다. SK는 17년간 프로에서 활약한 김재현이 SK와 친정팀 LG의 선후배 및 동료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25일 은퇴식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산하 마이니리팀에서 코치로 연수 중인 김재현은 일시 귀국해 팬들에게 고별인사를 한다.

임창용 日 올스타 중간집계 3위

야쿠르트 임창용이 20일 일본야구기구(NPB)가 발표한 올스타 팬투표 중간집계에서 유효표 42만9041표 중 3만1122표를 얻어 센트럴리그 마무리 투수 3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일본에 진출하자마자 퍼시픽리그 최다 득표를 달성하며 인기몰이를 했던 김태균(29·지바 롯데)은 2만4450표로 1루수 부문 5위에 머물렀다.

트렁크 속이 아쉬워할까? 애먹지 말고

에르고 ERGO

6,7월에 자동차보험 만기되면 **지금! 기회!**

아래 번호로 보험료만 알아봐도 **트렁크 정리함을 주니까!**

▶기간: 2011년 6월 30일까지 (매일 선착순 200명 / 시유고래에 한함)

첨두치만한 전화 번호 **1544-1666** ERGO이 에르고다음다이렉트*